

제1주 제

## 농업경영환경의 변화와 농가의 대응전략

---

이 영 석

(한국농업전문학교 교수)

농업경영환경의 변화와 농가의 대응전략

# 1. 농업경영환경의 변화와 전망

## 1) 세계화 측면

### (1) WTO

#### ■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질서 개편(GATT, IBRD, WB, IMF 등)

GATT :	농업 예외, BOP 조항 등 미 대통령 카터의 對소련 곡물수출 금지 (곡물재고 누증)
UR :	농업 포함(1986-1994) EU와 미국의 주도로 진행
WTO :	1995-싱가폴(1차, '96) → 제네바(2차, '98) 3차 각료회담('99, 시카고)→나폴리 4차 각료회담('01, 도하) DDA EU+USA 공동제안('03. 8) 5차 각료회담('03. 9, 칸쿤): EU+USA 對 개도국(22개국) 대립으로 결렬 6차 각료회담('05. 12. 13~18 홍콩): · 수출보조 철폐: 2013년까지 철폐 · '민감품목'과 '개도국 특별품목'은 각국이 스스로 선정 · 최빈국 관세 감축 · 차기 각료회의: 2007. 4. 스위스 제네바
↓	
○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?	

- 협상타결(2006년 말) → 각국의 이행계획서 제출(2007년) → 새로운 무역

질서 발효(2008년)

- 협상주도그룹(149개국):

FIPs = QUAD(미국, EU, 인도, 브라질) + 호주

G20: 인도, 브라질 등의 개도국 그룹

G10: 일본, 스위스, 대만 등의 농산물수입국그룹

G33: 개도국 특별품목 주장국가 그룹

G90: 아프리카 등지의 최빈국 그룹

### ○ DDA협상의 농업분야 쟁점

① 국경(관세) · UR 방식: 평균 관세율 기준

· 스위스 방식: 관세 상한선 설정

· 저율관세 쿼터량(TQR) 확대

② 국내보조

③ 수출보조

※ 농업보조 : 미국은 가격지지와 직접지불, EU는 가격지지, 직접지불, 수출보조에 매우 적극적임

예) 미국의 면화수출량은 세계시장의 30%, 수출가격은 생산비의 48%으로 덤핑(손실분을 정부가 보조해주기 때문)

⇒ 목화 수출로 연명하고 있는 Africa 4개국(부르키나파소, 베닌, 차드, 말리)은 농업인구가 73%, 그중 면화가 1/3, 1인당 GDP 300\$ 내외, 국가의 주수입원이 덤핑시장에 헐값에 수출 - 무엇을 먹고 살라는 것인가?

⇒ 선진국의 농업보호가 개도국의 농업 붕괴를, 개도국의 농업 붕괴는 식량마저도 수입에 의존하게 하여, 결국은 모든 물자를 수입으로 충당하게 되고, 이에 필요한 돈은 오로지 노동력만으로 벌어야 하는 상황이 강요되고 있는 형국이 문제

○ 세계화의 바탕은 신자유주의로, “힘 있는 자가 모든 것을..., 그 “힘”으로 하자, 정부는 되도록 빠져라!” ⇒ 세계경제포럼(다보스)

<반론> 세계사회포럼('01년부터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)

- NGO의 주장: · 다양성의 공존
  - 빈부격차 확대 방식(부국(富國)과 부자(富者) 중심의 세계화 반대)
  - 지적재산권 반대(copy left 운동 등)

※ 세계화로 세계정부가 출범할 것인가? 그러면 UN은 왜 자꾸만 약해지는가?, “하늘아래 모두가”는 이상이고, 현실은 사람(지식)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지 않음.

## (2) 자유무역협정

### ○ 다자주의(Globalism)와 지역주의(Regionalism)의 공존

- EU 15개국 ⇒ 25개국(2005) : 유로 화(貨) 경제권
- NAFTA 3개국⇒FTAA 34개국(2005): 달러화(貨) 경제권
- Northeast Asia Cooperation⇒East Asia FTA(?): 위안/엔화?

※ WTO에 통보된 FTA가 250건이 넘고, 현재 184개 FTA가 발효 중이며 (MERCOSUR(남미), Arab-FTA(중동), UMA(아랍 마그레 연합)), 2005년 말까지는 250여건으로 증가할 전망

### ○ 아시아지역의 동향

- 92년부터 동남아 6개국(싱가포르, 말레이시아, 인도네시아, 필리핀, 브루나이, 태국)은 2008년까지 AFTA 출범을 약속

- 99년 ASEAN(10국)+한중일 정상회담: 동북아 단일경제권 구축 논의 시작
- 2001. 10. APEC 정상회담: 2020년까지 역내 투자와 무역을 단계적으로 자유화하기로 함
- 2002년 일본+싱가포르 FTA 체결
- 중국: ASEAN과 10년 이내에 FTA 체결

※ 동북아시아 시장권(?) : 한-중-일-몽골-러시아 연해주-북한

○ 국가간의 경제통합은, 그의 정도에 따라서 자유무역협정→관세동맹→공동시장→경제연합 등의 여러 단계로 구분되며, 자유무역협정은 경제통합의 초기단계이므로, 세계화와 지역화 추세는 갈수록 심화될 것임.

- FTA 협정 체결국가: 칠레, 싱가포르, 유럽자유무역연합
- FTA 협상진행 중: 일본, ASEAN, 캐나다, 미국
- 공동연구 진행 중: 멕시코, 인도, 남미공동시장

### (3) 중국의 성장·발전

#### ■ 위협요인

○ ‘잘살아 보세’ → 돈 → 돈되고 팔리는 물건 생산·수출 → 농산물 수출 확대(예: 중국 농업과학원의 연구결과는 2010년까지 쌀 순수출국 지위 확보)

- 무역발전과정: 농산물수출 ⇒ 공산품수출 ⇒ 첨단제품 수출

○ 농업생산규모 :

- 남한 농지의 82배

- 쌀/면화 등의 세계 최대생산량

- 식량자급률: 98%

- 농산물 무역수지흑자: 연간 약 60억불(약 8조 1천억원)

- 생산비: 노임=일당 3천원, 농지=거의 무료수준의 임차료

※ 쌀생산비: 우리의 1/5 수준

- 농산물 다양성: 남으로 베트남에서 북으로 몽골과 접경

- 농업생산의 역동성: 노동자와 농민의 나라

· 지도사상 :

① 다여(多予): 농촌투자 확대, 퇴경환림(退耕環林)

② 소취(小取): 세제개혁

③ 방활(放活): 농민의 적극성, 자주성, 창조성 발휘와 농촌경제 활성화  
를 위한 당의 활동

○ 취약점 :

- 영세농(600~800평) → 기계화 곤란 → 노임상승 → ?

- 제도금융 미비(연리 30%의 사채 이용) → 수익성 악화

- 연 7~8%의 경제성장 → 도농격차(2:1) 확대 → 이농 → 노임상승 → ?

- 연 7~8%의 경제성장 → 부유층 증가(연소득 1만불 이상인 사람이 1억명에 육박) → 고가품시장 확대 → 수입수요 증가

- 세계 7%의 농지로 세계인구의 20%를 충분히 부양하려면, 머지않아 수입을 피할 수 없을 것임.

⇒ 중국시장: 인구 12억의 세계 최대시장

(AFTA: 5억 2천만명, EU: 5억명, NAFTA: 4억 1천만명, MERCOSUR: 2억 2천만명, 일본: 1억 3천만명, 한국 4천 6백만명)

⇒ 세계화/지역 블록화의 진전으로, 우리나라를 비롯하여, 중국, 일본, 몽골, 러시아의 연해주와 사할린이 하나로 묶인 농산물 시장이 형성될 것이고, 한동안은,

- 중국은 농산물 수출국으로,
- 일본을 비롯한 몽골과 러시아는 농산물 수입국으로,
- 그리고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그 역할이 정해지게 될 것임

## 2) 국내 현실

### ■ 농촌공동화(空洞化)

⇒ 도시과밀문제+고용문제 ⇒ 국가적 및 국민적 부담 증가와 구조적 요인

- 농가소득: 도시가계의 75%
- 농업인구: 2005년 6.4%대, 노인인구 비율 급증

### ■ 정치불안과 사회적 무관심

- IMF이후의 저부자→실업률 증가→소비 위축→저성장
-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확산
- 경제계, 정계, 언론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관심

⇒ 도농, 지역, 빈부 등의 격차증대

## 2. 농촌경제의 장애요인

### 1) 농업 내부적 요인

#### ■ 자본주의의 진전과 시장경제에 대한 미숙



- 농업 경제학과 경영학의 불균형 발전
- 소농구조: 뭉쳐야 힘을 발휘 → 조직화로 극복
- 유통과 판매의 불균형 발전
- Producer Market(제품이 중요)→Buyer Market(시장이 중요)

## ■ 농가의 자본축적기회 상실

- 일제 36년 → 6·25 → 전후복구 → 식량원조 → 근대화(저임금/저곡가) → UR → WTO → DDA/FTA

## ■ 기술력과 자본력

- 중국보다 앞섰고 일본보다는 뒤져있으나 그의 격차는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늘 연구하고 탐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항상 한발 앞서있을 수 있음

## ■ 쌀 재협상 및 쌀 정책기조의 변화

- 쌀 재협상:
  - 1995~2004 사이: 51톤(1995) → 205톤(2004)
  - '88-'90년의 연평균 소비량의 1%를 의무수입량(MMA)으로 수입하기 시작하여, 매년 늘려서 2004년에는 4%를 수입하기로 함.
  - '05년부터 2014년까지 관세화 유예, MMA물량을 8%까지 늘리기로 함
- 정책기조의 변화

종 전	주요 기능별	변 정
양곡수매제도	식량안보기능	공공비축제
	가격지지 및 소득안정기능	직접지불제
	수급안정기능	민간 RPC 지원

## ■ 농가교역조건외 악화

### 2) 농업 외부적 요인

#### ○ 철학과 인식의 부족

- 대(對) 농산물 정책 : 식량자급, 수급 안정 등의 목표는?
- 대(對) 농민(農民)정책 : 생활(소득)수준 향상목표는?
- 대(對) 농촌(農村)정책 : 전통문화, 지역개발, 생활공간 쾌적화 등?
- ※ 농산물만 부족하지 않으면 되느냐?
- ※ 농산물 수급이 불안하다는 사실만으로도 사회적 동요와 불신이 국가의 안정을 위협할 수 있음.
- ※ 사회를 지탱하는 질서와 인내와 더불어 사는 지혜는 농업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, 그래서 선진국들이 농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음

#### ○ 경제 제일주의 : 상업적 수익성과 비교우위론 만능

- 교육, 기초과학, 인문학, 문화, 농업 등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 고조

### 3. 농촌경제, 활로는?

#### 1) 내수시장

#### ■ 내수시장은 지켜내야 하고, 지켜낼 수 있다.

- 식품은 신뢰(信賴)가 기본이다.

- 농산물의 경쟁력은 「신선도(新鮮度)」다.
- 개성적 소비로 틈새시장이 열리고 있다.
-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로 전처리농산물 수요가 늘고 있다.
- 생활여유, 시간 여유로 전통식품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.

※ Slow Food : 이태리 북부의 Bra 마을에서 시작되어 현재 40개국에 7만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음.

- 햄버거와 같은 Global Standard의 획일적 세계화 반대
- 3대 활동방향: ①사라져가는 전통식품/전통농산물을 지키자  
②이의 소규모 생산자들을 지키자  
③올바른 식문화를 가르치자(어릴 때 버릇…)

※ 웰빙(Well-being) → LOHAS(Lifestyle of Health and Sustainable)

## 2) 수출시장

■ 수출시장도 개척하기 나름이다.

- 농림축산물 수출증가 추세

22억2,380만달러('04) → 24억5,000만달러('05) : 10.5% 증가

- 고급품 중심: 유자청, 사과, 일본의 최고급 쌀 등
- 고부가가치 분야: 농산물 → 품종 · 종자 · 기자재 · 생산기법 등

- 동북아 시장에서 우리 농업의 역할: EU 시장에서의 네덜란드 농업

농산물 수입국 → 농산물 자급국 → 농산물 수출국 → 농업 선진국

## 4. 농가의 대응전략

■ 당면 경영환경

- 농산물수급 상황의 변화:

공급부족(先생산, 後판매)	→	공급과잉(先수요파악, 後생산·납품)
(생산이 소비를 지배하는 시대)	→	(소비가 생산을 지배하는 시대)
(Producer Market)	→	(Buyer(Consumer) Market)

⇒ 증산(増産)을 통한 소득증대의 한계:

- 전후방 및 연관산업의 통합을 통한 시너지(상승) 효과의 극대화
- 소득영역(所得領域)의 확대를 위한 영업활동영역(가공, 판매 등)의 확대
- 잠재(潛在)자원의 소득사업화(경관, 공간, 문화, 체험 등)

⇒ 공동사업과 사업영역의 확대 및 통합은 필연적임

## ■ 공동소득사업의 기본원칙

○ 「개인(사람)에 의한 경영」 → 「시스템(제도 및 장치)에 의한 경영」

※ 공동사업 형태: 영농조합, 농업회사, 주식회사, 합자회사, 합명회사, 유한회사 등

- 전문가에 의한 경영의 원칙
- 생산계획 조정의 원칙
- 전량납품의 원칙

## ■ 중장기 과제

○ 이제는 경영이다(안살림/바깥살림)

-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가 지배하는 세상에서는, ‘영농’보다는 ‘돈을 버는 사업을 경영’ 해야 합니다.

-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.

- 경제활동영역을 넓혀라.

- 이제 농산물 증산만으로는 어렵습니다.

- 생산+가공+판매+관광(주5일 근무) 등의 통합경영

- 뭉쳐서 시장교섭력을 높여라 ⇒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

- 얼마지 않아서 각개약진은 한계에 이르게 됩니다.

- 농촌 공동체의 성장·발전이 최종적인 목표다.